Journal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Korea Maritime University. Vol. 4, 1996

학생들이 바라는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방향

이 효 웅*

College English Education from the Students' Point of view

Hyo - Woong Lee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1. 설문지
2. 응답자
Ⅲ.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at the students think of college English education. A totle of 256 students who were attending the Korea Maritime University in Fall semester, 1995,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which were composed of 38 question items.

The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revealed several things : First, 95 percent of the students reported that learning English is quite necessary in college education. Second, it was also reported that most of the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English conversation class, bu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English reading class. Third, the students responded that professor's enthusiasm and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could be the best way to make the English class interesting. Fourth, it was also reported that getting a job might be the main goal of studying English to most of the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부교수(언어학전공)

students. Fifth, two – thirds of the students reported that they usually spent five or ten minutes preparing for each of the English class. Sixth,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reported that English for communication must be as important as English for reading in college English education. Seventh, it was also reported that almost half of the students tended to think the present teaching methods must be changed in a radical way.

Ⅰ. 서 론

최근에 와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제화, 혹은 세계화 라는 말을 곧 잘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개방화의 시대 또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대학도 최소전공인정제, 복수전공제, 및 학부제와 졸업학점의 대폭적인 축소와 같은 혁신적인 조치들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앞 다투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와 같은 제도들의 섣 부른 도입이 대학교육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하여서는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사회와 대학이 변화와 탈바꿈으로 진통을 하고 있는 시기에 대학의 교양 영어교육, 즉 세계화, 개방화의 길로 가는대 필수적인 도구의 역할을 하여 줄 외국어교육이 변화의 바람이 불지않는 무풍지대에서 안주만 할 수 있겠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양영어는 강독수업이 주가 되고 Lab수업은 부가 되어 있는대, 그 주가 되는 강독수업에서는 다소의 예외는 있어도 교수나 강사가 그저 영어를 읽고 그 것을 우리 말로 해석을 하여 주는 것이 고작이며, Lab수업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녹음테이프를 틀어주고 그 것을 단순이 듣게하거나 혹은 때때로 따라하게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러한 교수 중심의 수업 형태에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는 학생 중심의 수업형태로 대학 영어교육이 전환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 인가? 또 한편으로 대학 교양 영어교육이 교양이라는 두 글자에 얽매이어서 종전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있겠는가? 교양영어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교양은 우리 말로 된 글을 통해서 더 짧은 시간과 더 적은 노력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공정호(1969)는 교양영어의 목표을 "교양영어는 일반 지식인이 지녀야 할 교양으로서의 영어 지식을 습득케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전공과목을 이해함에 도움이 되고, 특히 원서 해독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이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한빈(1980)은 교양영어의 목표는 "이제 외국어, 특히 영어는 단순한 교양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실용적,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목표가 인격도야를 위한 순수한 교양보다는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창호(1995교양영어의 목표를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실용적인 면으로서 영어 사용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서신 교환, 강의 청취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둘째,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보다 한 차

원 높은 영어을 읽고 이해하여 자기전공 분야에서 영어로 된 원서를 쉽게 강독할 수 있는 능력를 배양하고, 셋째, 영어로 된 문학작품이나 경제,교육, 사회, 정치 등 여러 분야의 서적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일반 지식인으로서 높은 교양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며, 넷째, 영어 학습을 통하여 보다 논리적, 체계적인 지적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양영어의 목표도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반드시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학 교양영어 교육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교육 이념과 합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시대적 요청에도 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영어교육에 교육의 주체가되는 교수와 학생의 의견과 생각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교양 영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를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교양 영어교육의 개선에 이 받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설문지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김창호(1995)의 것을 토대로 하여 개정 보완된 것이다.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설문지는 교양 영어교육의 목표, 시간과 학점수, 수업과 교재에 대한 만족도,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개선 방법, 평가 방법, 어학실의 필요성, 및 교수의 강의 계획서 등 교양 영어교육의 전반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설문지는 필자의 수업 중에 학생들의 양해하에 시행되었다.

2. 응답자

본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은 256명 이다. 이 들 모두는 1995년 2학기에 한국해양대학교의 이공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각각 3개과에 다니고 있는 일학년 학생들이다. 이 모든 응답자들은 일 주일에 영어강독과 영어회화를 각각 2시간씩 의무적으로 수업을 받는다. 이 응답자들은 한국 대학생들의 중 상위 집단을 대표하리라고 생각된다.

Ⅲ. 연구 결과 분석 및 논의

아래의 설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양 영어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과 필요하다고 대답한 학생이 각각 51% 와 44%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교양영어가 대학교육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교과과목이라는 학생들의 견해가 잘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양영어교육의 필요성

문항 1	교양영어를 대학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1%	1. 꼭 필요하다.	
44%	2. 필요하다.	
3%	3. 필요없다.	
2%	4. 잘 모르겠다.	

표 2.. 수업과 교재의 만족도

문항 2	영어강독 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1	2	3	4
	2%	28%	51%	19%
문항 3	Lab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1	2	3	4
	17%	68%	14%	1%
문항 4	영어강독 교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1	2	3	4
	1%	42%	44%	13%
문항 5	Lab교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1	2	3	4
	11%	76%	13%	0%
	1 매우 만족한다		2 대체로 만족한다	
	3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		4 전혀 만족하지 못한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70%의 학생들이 영어강독 수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Lab수업에는 85%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이 두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이 영어강독 수업에 대해서 (이 결과가 강독수업의 전체에는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강독교재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57%)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Lab교재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88%)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뚜렷한 대조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강독수업과 교재에 대해서 변화와 개선의 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또한 대학 영어교육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양영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기회을 제공하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위의 표 3에 의하면 67% 의 학생들이 교양영어에 대하여 흥미를 가진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결과는 강독과 어학실 수업을 구분한 질문이 아니지만 예상외로 대단히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교양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표 3이 보여 주는 바에 의하면 교수의 열성과 다양한 교수방법이 교양영어 수업을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되였다 (38%). 다양한 내용을 갖춘 교재(27%)와 학급당 적정한 학생수(22%)가 그 다음

표 3. 교양영어의 흥미 및 영어실력 부족의 원인

문항 6	교양영어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13%	1. 매우 흥미가 있다	
54%	2. 대체로 흥미가 있다	
27%	3. 대체로 흥미가 없다	
6%	4. 전혀 흥미가 없다	
문항 7	교양영어 수업을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27%	1. 다양한 내용을 갖춘 교재	
38%	2. 교수의 열성과 다양한 교수방법	
22%	3. 학급당 적정한 학생수	
13%	4. 영어교육을 위한 우수한 시설	
문항 8	자신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11%	1. 중고등학교때 부터 흥미를 잃어서	
3%	2. 아무리 노력해도 않됨	
30%	3. 영어의 기초가 없어서	
2%	4. 영어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8%	5.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46%	6. 게을러서	

표 4. 영어학습과 평가의 우선 순위

문항 9	영어학습 중에서 가장 자신있는 것은?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6%	8%	77%	9%	
문항 10	교양영어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35%	53%	10%	2%	
문항 11	교양영어의 평가내용 중에서 가자 중요한 것은?			
1. 독해	2. 구문(문법)	3. 어휘	4. 작문	5. 듣기와 말하기
15%	0%	3%	6%	76%

으로 각각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영어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정열을 쏟아 부어야 되며 또한 다양한 교수방법에도 정통해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표 3이 보여 주는 또다른 흥미있는 사실은 응답자의 46%가 게을러서 자신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대답하였다. 영어에 기초가 없어서 영어 실력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30%). 그 이외에도 자신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원인이 중고등학교때 부터 흥미를 잃어서 라고 응답한 학생도 11%에 달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은 강한 학습동기을 가지고 쉬운 영어 부터 시작하여 기초실력 배양에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의 4 기능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자신있는 것은 읽기라고 응답하였다(77%). 다른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응답율을 보여 주었다. 중학교때 부터 문법과 읽기 위주로 영어를 배워 왔기 때문에 위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결과는 한국의 영어교육이 지금까지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외국어의 한 기능만에 치중되어 왔는가을 잘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중학교에서 처음 영어를 가르칠때 부터 영어의 4기능을 똑같이 훈련을 시켜야겠다. 표 3에 의하면 응답한 학생의 반이상 (53%)이 말하기를 교양영어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양영어에서 우선해야 될 것은 듣기(35%)라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이런 요구와 희망은 대학에서 현제에 실시되고 있는 교양영어의 수업과는 거리가 상당이 먼 것으로 여겨진다. 교양영어의 평가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도 76%의 학생이 듣기와 말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결과는 학생들 대부분이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 교육을 대학에서 실시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학은 이러한 학생들의 강렬한 욕구를 언제까지나 외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공부의 필요성을 매우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이 64%에 달 하였고, 또한 34%의 학생들도 영어공부의 필요성을 대체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어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취직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59%), 그 다음으로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2%이였다. 그런반면에 단지 10%의 학생만이 영어을 공부하는 목적은 학문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유학 및 해외에 가기 위해서 혹은 전공원서을 잘 읽기 위한 것이 영어공부의 목적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각각 5%와 4%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취업을 하기 위한 것이 대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영어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표 5는 대부분의 응답자들(86%)이 교양영어에 있어서 Lab(어학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본교는 2개의 어학실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 학년이 1250명이라는 학생 수에 비추어 볼때 어학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과제로 생각되어 진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교양영어과목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61%)이 선택으로 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39)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양영어 학점은 4학점이 가장

표 5. 영어학습의 필요성 및 목적

문항 12	영어학습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64%	1. 매우 느낀다.	34%	2. 대체로 느낀다.
	2%	3. 대체로 못 느낀다.	0%	4. 전혀 느끼지 못 한다.
문항 13	영어학습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2%	1. 교양을 쌓기 위해	59%	2. 취직을 하기 위해
	10%	3. 학문을 쌓기 위해	5%	4. 유학 및 해외에 가기 위해
	4%	5. 전공원서을 잘 읽기 위해		
문항 14	영어학습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6%	1. 교과서	5%	2. 소설 및 수필
	15%	3. 영어신문 및 잡지	75%	4. 비디오, 라디오 및 TV
문항 15	Lab(어학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86%	1. 꼭 필요하다	13%	2. 대체로 필요하다
	1%	3. 대체로 불필요하다	0%	4. 아주 불필요하다.
	0%	5. 잘 모르겠다.		

표 6. 교양영어의 학점과 학습방법

문항 16 교양영어과목은 어느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61% 1. 필수 39% 2. 선택

문항 17 교양영어의 가장 적당한 학점은?

32% 1. 2학점 12% 2. 3학점 46% 3. 4학점
6% 4. 6학점 4% 5. 8학점

문항 18 교양영어의 강독과 Lab의 가장 적당한 학점비율은 어느 것입니까?

5% 1. 강독 2 : Lab 1 55% 2. 강독 2 : Lab 2 2% 3. 강독 4 : Lab 2
28% 4. 강독 4 : Lab 28 9% 5. 그외

문항 19 외국인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15% 1. 있다 85% 2. 없다

문항 20 영어 관련 TV나 라디오를 시청합니까?

6% 1. 자주한다 63% 2. 가끔한다 31% 3. 전혀하지 않는다

문항 21 수업시간 이외에 영어 카세트 테이프를 듣습니까?

4% 1. 자주 듣는다 40% 2. 가끔 듣는다 65% 3. 전혀 듣지 않는다

문항 22 영어신문이나 잡지를 읽습니까?

0% 1. 자주 읽는다 62% 2. 가끔 읽는다 38% 3. 전혀 읽지 않는다

표 7. 수업방법 및 이해의 정도

문항 23 현재의 교양영어(강독)수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32% 1. 해석 뿐임 34% 2. 해석과 문법설명
27% 3. 해석과 어휘설명 7% 4. 해석중심에 의사소통도 혼용됨

문항 24 교양영어(강독)수업의 이해정도는 어떠합니까?

1% 1. 완전히 이해한다. 59% 2. 대체로 이해한다.
35% 3. 대체로 이해 못한다. 5% 4.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문항 25 교양영어(강독)수업은 고등학교때의 영어수업과 비교하여 볼때 어떠습니까?

6% 1. 많은 차이가 있다. 15% 2. 다소 차이가 있다.
47% 3. 대체로 차이가 없다. 32% 4. 전혀 차이가 없다.

문항 26 현재의 Lab수업에는 어느 것이 사용됩니까?

0% 1. 녹음 테이프 만을 진행된다.
0% 2. 비디오 테이프만을 사용한다.
100% 3.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같이 사용한다.

문항 27 현재의 Lab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0% 1. 듣기 수업 만으로 진행된다.
47% 2. 듣기 수업 중심에서 말하기 연습도 많이 한다.
53% 3. 듣기와 말하기가 반반이다.

문항 28 Lab수업의 이해 정도는 어떠 합니까?

7% 1. 완전히 이해한다. 87% 2. 대체로 이해한다.
6% 3. 대체로 이해 못 한다. 0% 4. 완전히 이해 못 한다.

문항 29 교양영어수업은 앞으로 어떠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3% 1. 독해(해석)중심의 수업을 해야한다.
6% 2. 구문(문법)과 어휘 설명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해야한다.
52% 3. 독해와 의사소통이 반반이 되는 수업으로 해야한다.
39% 4.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해야한다

적합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6%로 가장 많았다. 교양영어의 강독과 Lab의 학점비율은 반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55%로 가장 많았고, 강독 2학점과 Lab 4학점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대답한 응답자(28%)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외국인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일학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업시간 이외에 영어 카세트 테이프를 가끔 듣거나 영어신문이나 잡지를 가끔 읽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40%와 62% 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영어공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영어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강독수업은 대체로 해석과 문법 및 어휘 설명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업을 대체로 이해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9%이고, 그 나머지 학생은 대체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강독수업이 고등학교의 영어수업과 대체로 차이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15%이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에 불과했다. 그 반면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32%나 되었다. 이 결과는 현재의 영어강독수업이 변해야 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잘 말해 주고 있다.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양영어의 수업은 독해와 의사소통이 반반이 되는 수업(52%)이고, 그 다음이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수업(39%)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 역시 현재의 강독과 Lab수업이 주로 독해와 듣기 훈련 위주로 되어있는 것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표 8에서 보면 교양영어수업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과제물을 부과하는 회수는 1-2회(5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회수는 3-4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응답자 중에서 65%가 교양영어수업 준비을 전혀 하지 않거나 또는 수업을 하기 바로 직전에 5분내지 10분 가량 수업을 준비한다고 대답한 사실이다. 이 결과는 교양영어수업에서 숙제를 내어 주는 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숙제를 많이 부과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교양영어공부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또 교수가 과제물을 많이

표 8. 교양영어수업의 준비 및 실천

문항 30	교양영어수업에서 숙제를 내어주는 회수는(한 학기에)?				
	55%	1. 1-2회	32%	2. 3-4회	
	5%	3. 5-6회	8%	4. 매시간마다	
문항 31	매시간 교양영어수업을 준비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30%	1. 전혀하지 않는다	35%	2. 수업직전 5-10분	25% 3 30분 정도
	6%	4. 1시간 정도	4%	5. 2시간 정도	
문항 32	교양영어수업에 대한 강의 계획서나 학점 산출방법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7%	1. 유인물로 알여준다.	56%	2. 구두로 알여준다	
	17%	3. 전혀 알여주지 않는다			
문항 33	강의 진도표나 학점 산출방법을 알여 주신다면 그 실천율은 어떠습니까?				
	27%	1. 80%이하	43%	2. 80%-90%	
	17%	3. 90%-95%	13%	4. 95%-100%	

표 9. 교양영어 선택과목 및 수업형태

문항 34	교양영어가 일학년에 치중되어 있어서 2, 3, 4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38%	1. 아주 찬성한다	53%	2. 대체로 찬성한다		
	3%	3. 대체로 반대한다	11%	4. 아주 반대한다		
문항 35	선택과목을 개설한다면 가장 적당한 과목은?					
	1%	1. 고급영어	6%	2. 시사영어	26%	3. 실용영어
	36%	4. 외국인회화	31%	5. TOEIC이나 TOEFL		
문항 36	교양영어수업을 능력별 반편성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8%	1. 매우 찬성한다	58%	2. 대체로 찬성한다		
	23%	3. 대체로 반대한다	11%	4. 아주 반대한다		
문항 37	교양영어 특별 면제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4%	1. 매우 찬성한다	48%	2. 대체로 찬성한다		
	30%	3. 대체로 반대한다	8%	4. 아주 반대한다		
문항 38	교양 영어교육에서 가장 빨리 바꾸어져야 할 것은?					
	5%	1. 교재	45%	2. 교수방법		
	23%	3. 시설	27%	4. 학생수(반당)		

내면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그 과제물 처리가 어려운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위의 표 8을 통해서 또 밝혀진 것은 교양영어수업에 대한 강의 계획서나 산출방법을 교수님들이 유인물이나 구두로 알려 주신다고 응답한 학생이 85%에 달하였다. 또한 73%의 응답자는 강의계획서의 80%이상을 교수님께서 실천에 옮긴다고 답하였다.

위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교양영어가 일학년에 치중되어 있어서 2, 3, 4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91%에 달하였다. 이는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택과목으로 개설한다면 가장 적당한 과목은 외국인회화(36%), TOEIC이나 TOFLE (31%),그리고 실용영어(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양영어수업을 능력별 반편성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58%의 학생들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일들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된다. 거의 3분의 2 학생들(62%)이 교양영어 특별 면제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학교당국과 영어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양영어교육에서 가장 빨리 바꾸어져야 할 것은 교수방법(45%), 반의 학생수(27%), 시설(23%), 및 교재(5%)의 순으로 드러났다.

Ⅳ. 결론 및 제의

본 연구는 사회과학대학과 이공대학의 일학년 각각 3개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다. 그 설문 결과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양영어는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둘째, 3분의 2이상의 학생들이 영어강독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학실수업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67%의 학생들이 교양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양영어수업을 흥미있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의 열성과 다양한 교수방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응답자들은 자신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이 영어에 기초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다섯째, 대학생에게 영어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취직을 하기위한 것이며, 그 다음이 교양을 쌓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섯째, 영어공부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비디오 테이프, 라디오 및 TV라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영어공부를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영어강독수업이 고등학교때의 영어수업과 대체로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거의 반이였고, 심지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학생도 3분의 1 정도가 되였다. 이 결과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여덟째, 학생들은 교양영어수업은 앞으로 독해와 의사소통이 반반이 되는 수업으로 또는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홉째, 매 시간 교양영어수업을 준비하는데 30분 이상을 보내는 학생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발견되였다. 이것은 교수의 교수방법과 숙제을 내어주는 회수와도 상당이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열째, 교양영어수업을 능력별 반편성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과 교양영어 특별 면제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분의 2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교양영어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바꾸어져야 할것은 교수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위에서 밝혀진 학생들의 교양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 혹은 바램은 전폭적으로 수용은 할 수 없겠지만 학교당국이나 교양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공정호. (1969). College English의 교육적 과정. 국민대학논문집,
2) 김영희. (1971). 일본의 영어교육 현황. 영어교육, 8, 61 - 63.
3) 김창호. (1955). 지방대생 영어학습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영어교육, 50(1), 65 - 92.
4) 김충배. (1988). 영어교육의 제문제, 서울 : 한신문화사.
5) 박상옥. (1988).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위한 제안. 영어교육, 35, 83 - 103.
6) 신성철. (1981).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제 문제와 대응책. 영어교육, 21, 147 - 160.
7) 이한빈. (1980). 미래가 요구하는 영어교육. 영어교육, 2, 2 - 5.
8) 최용재. (1995). 교양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전국 국립대학(교)어학연구소장협의회, 부산대학교.